

## 1 개요

세경본풀이는 농경신의 내력을 담은 무속신화이다.

인간세상의 자청비는 거둑 남장을 하면서 갖은 고난을 극복하고 하늘나라의 문도령과 사랑을 이룬 뒤에 오곡과 메밀 씨앗을 얻고 지상으로 내려와 농경의 신이 되었다.

## 2 내용

김진국 대감과 조지국 부인은 부자로 살았으나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이었다. 시주 받으러 온 중의 말을 듣고 절에 불공을 드렸으나 정성이 모자라 딸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과연 예쁜 딸을 낳게 되자 자청비라 이름짓고 고이 길렀다.

열다섯 살이 된 자청비는 하녀 느진덕정하님이 늘 빨래를 하니 손발이 곱다는 말을 듣고 함께 빨래하러 나섰다. 자청비는 하늘 옥황 문선왕의 아들 문왕성 문도령이 거무선생에게 글공부하러 가다가 물 한 모금을 청하자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 건네 문도령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반하게 하였다. 자청비는 부모에게 친구와 함께 글공부하러 가겠다고 하고 오라비로 남장하고 문도령을 따라 서당으로 갔다. 문도령과 함께 숙식을 하게 되자 잠자리 사이에 대야에 물을 떠놓고 그 위에 수저를 걸쳐 이를 떨어뜨리면 공부를 망치는 법이라고 하여 접근을 막았다. 문도령이 자청비의 정체를 의심하는 바람에 오줌 멀리 누기와 같은 내기를 하게 되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승리할 뿐 아니라 자신의 여자임을 숨기는데도 성공하였다.

자청비는 3년 뒤 하늘에서 혼인해야 하니 돌아오라는 편지를 받고 서당을 떠나는 문도령과 함께 귀향하기로 하였다. 도중에 목욕을 하고 가자 제안하고 문도령이 목욕하는 위쪽으로 가서 나뭇잎에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는 내용의 글을 써서 띄워 보내고는 먼저 집으로 향하였다. 사실을 알고 급히 뒤쫓아 온 문도령과 하룻밤을 함께 지내고 떠나는 문도령에게 증표를 요구하여 복숭아씨와 열레빔을 받아두었다.

자청비는 복숭아씨를 심고 기다렸으나 꽃이 필 때까지도 문도령 소식이 없자 심통이 나서 남종 정수남이를 게으르다며 나무랐다. 정수남이는 소 아홉, 말 아홉 마리를 이끌고 나무하러 가서 낮잠을 자다가 소와 말을 굶겨 죽이고도 모자라 그 고기를 다 먹어치우고, 연못에서 도끼를 던져 오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도끼마저 잃고, 도끼를 찾으려고 옷을 벗고 연못에 들어섰다가 옷을 도둑 맞는 지경에 이르자, 나뭇잎으로 성기를 가리고 몰래 집

으로 돌아가 장독대에 숨었다가 곧 발각되었다.

자청비는 정수남이가 산속에서 문도령이 선녀들과 놀이하는 것을 보다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정수남이와 함께 문도령이 놀이하었다는 곳으로 향하였다. 자청비는 정수남이가 펼치는 갖가지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끝내 겁탈까지 하려고 하자 정수남이를 죽이고 말았다. 자청비는 부모에게 사실대로 고하였으나 오히려 귀한 종을 마음대로 죽였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으로 가서 부엉이를 잡아주고 막내딸의 사위가 된 뒤에 주화(呪花)를 구해다가 정수남이를 살려내었다. 그러나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살린다는 이유로 다시 쫓겨났다.

자청비는 다시 정처없이 다니다가 주막집에 머물게 되었다. 비단 짜는 실력이 뛰어나 주모할머니의 수양딸이 되었다. 주모할머니가 짜는 비단이 문도령이 서수왕 따님에게 장가들 때 입을 옷임을 알고 대신 짜면서 자기 이름을 새겨 두었다.

자청비는 찾아온 문도령에게 창구멍으로 손가락을 들이밀라고 하고 바늘로 찌르는 바람에 문도령이 화를 내며 돌아가버려 만날 기회를 놓쳤다. 자청비는 상사병에 걸린 문도령이 자청비가 손발 씻은 물을 떠오라고 보낸 궁녀를 만나 함께 하늘로 갔다. 문도령 집에 이르러 나무에 올라 노래를 불러 드디어 상봉하여 증표인 열레빗을 확인하고 병풍 뒤에 숨어 함께 살았다. 정체가 드러날 것을 염려한 자청비는 문도령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서수왕 따님과 파혼하고 자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문도령 부모가 숯불 위에 놓인 칼날을 맨발로 타면 며느리로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대로 하다가 뒤통치를 살짝 베었으나 월경 탓이라고 하고 시험을 통과하여 혼인하게 되었다.

자청비는 자신이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의 막내딸과 혼인했던 사실을 말하고 문도령에게 보름씩 오가며 살라고 하고 보냈으나 보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편지를 보내었다. 편지를 보고 놀란 문도령이 엉겁결에 말을 거꾸로 탄 채 돌아오자 자청비는 손질하던 머리를 지푸라기로 급히 묶고 마중하였다.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 하늘 옥황의 청년들이 자청비를 탐내어 문도령을 죽이기 위하여 독약 탄 술을 먹이려 하자 자청비가 먼저 알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으나 문도령은 거듭 이루어진 시도에 암살당하고 말았다. 이에 자청비는 다시 서천꽃밭으로 가서 환생꽃을 따다가 문도령을 살려내었다.

하늘 옥황에 큰 변란이 생기자 자청비가 문도령을 대신하여 장수로 나서 서천꽃밭에서 멸망꽃을 따다가 평정하고, 그 상으로 얻은 오곡씨를 가지고 7월 14일 인간 세상으로 내



려갔다. 도중에 만난 정수남이가 배고프다고 하므로 부자와 가난뱅이의 밭에 가서 얻어먹게 하고 그 대응을 보아 부자에게는 흉년 들게 하고 가난뱅이에게는 풍년들게 해주었다. 파종 시기가 늦어 조농사를 짓지 못함을 알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메밀씨를 얻어다 조 파종 시기를 놓쳤을 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이는 하세경이 되었다.

### 3 특징

안사인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세경본풀이는 본풀이 가운데 가장 풍부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애정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로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힌다. 여성인 자청비가 지상과 천상을 넘나들며 주도적으로 사랑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문도령에게 닥칠 위기를 내다보고 슬기롭게 대처하는가 하면 하늘나라의 변란을 평정하기까지 하는 모습이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축영대 양산백’ 이야기, 함경도의 문굿 사설에서도 공통되는 내용이 있으나, 세경본풀이는 이들 이야기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정수남이가 소 아홉, 말 아홉을 잡아먹는 대식성을 보인다가 자청비가 서천꽃밭의 꽃을 따다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한다는 내용은 제주도 본풀이 전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 4 핵심어

김진국, 족지국, 시주, 불공, 문도령, 거무선생, 버들잎, 정수남이, 대식성, 하늘 옥황, 서천꽃밭, 주화(呪花), 주모, 비단, 서수왕, 오줌누기, 환생꽃, 멸망꽃, 오곡씨, 메밀씨, 상세경, 중세경, 하세경, 축영대, 양산백, 문굿, 자청비

### 5 원전 서지사항

세경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6 관련 자료